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⑬ 보문(普門)의 구도 수행 1



▶한줄요약
보문의 구도 수행 과정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승의 구도 수행을 살피는 모범과 범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 선승의 모범과 범례, 보문 선사

이제부터 한민족 선의 터전을 마련하고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선승들의 구도 수행 자취를 따라가기로 한다. 그간 쌓인 그들에 대한 담론은 적실하여 감동을 주지만 미화되거나 과장된 면도 있다. 선승의 행적이 신비화된 경우도 있다. 앞으로 그 허구의 포장이 조금씩 걷히기를 소망하지만, 필자의 무명업식과 망념에 의해 또 다른 사단이 생겨날까 두렵다. 있었던 그대로에 다가가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할 뿐이다. 선승의 행적을 거두절미 내세우기보다 맥락과 관계를 통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선승과 제자, 선승과 선승, 선승과 속인 사이의 관계를 유념할 것이다.

삼국시대 선승을 내세워야 할 이 앞자리에 보문(普門, 1906~1956)을 우선 모신다. "보문 스님이 10년만 더 사셨어도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스님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언행일치'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은사 고우(古愚, 1937~2021)의 가르침을 명심했기 때문이다. 보문의 구도 수행 과정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승의 구도 수행을 살피는 모범과 범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보문은 유일한 상좌 희섭에게 자신과 관련된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입으로만 전해지던 보문 담론은 그가 입적한 지 56년 뒤인 2012년 〈보문선사〉(보문문도회 김광식 엮음, 민족사)라는 책으로 간행됐다. 보문과 함께 살거나 보문을 만난 적이 있는 스님, 은사를 통해서나 선방 수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님, 재가 제자 등 22명의 인터뷰가 이 책에 담겼다. 소중한 증언들이 가득하지만 부정확한 기억, 부연과 첨가, 비의도적 탈락 등으로 인해 모순되고 상충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필자는 그런 부분을 꿰뚫어 보아 조정하고 정돈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

보리밭에 버려진 아이

보문은 1906년 7월 3일 문경에서 태어났다. 속가 이름은 신현묵(申鉉默)이고 호적상 이름은 신기옥(申奇玉)이다. 그의 출생 및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하나는 성수(性守, 1923~2012)가 전하는 것이다. 성수는 봉암사 결사 중 봉암사를 떠나간 보문이 복천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보문을 존경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보문이 자기 출생과 유년의 비화를 말해줬다고 한다.

보문의 어머니는 7남매를 낳았는데 또 아기를 가지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그의 큰며느리도 임신을 했다. 시어미는 며느리와 똑같이 부른 배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보리밭에서 아기를 낳고 버렸다. 시어머니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큰며느리는 주위 곳곳을 살펴봤다. 보리밭을 뒤진 지 3일째 되는 날 어디선가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밭이랑 한 곳에 아기가 있었다. 보리가 익을 때라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아기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 아기가 보문이었다. 큰며느리는 아기 보문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서 유모로 하여금 키우게 했다. 보문이 11살이 된 어느 날 동네사람이 보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네 집에 가서 살지 않느냐?" 충격을 받은 보문이 물어물어 자기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형수만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보문에게는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형수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죽고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도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다시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보문은 밑바닥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 출가하게 되었다. 성수는 "보문 스님에게 어떻게 중이 됐냐고 물었더니 사연을 다 말하더군"이라며 보리밭 아기 이야기를 보문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문의 상좌인 희섭(喜燮)의 상좌, 즉 보문의 손상좌가 되는 무관(無觀, 1946~)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무관도

형수 도움으로 목숨 건져
어릴때부터 '생 · 사' 사유
독립운동 하기 위해 잠적

은사 희섭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은 기억이 분명하다고 했다. 희섭이 대구 보현사에서 말년의 보문을 시봉했으니 희섭도 보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문이 막내로 태어난 것을 중요한 전제로 삼는데 그 점은 보문이 장남임을 알려주는 호적 상 가족관계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 이야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기적적으로 구원되는 영웅의 기아(棄兒) 모티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 선승들의 탄생담을 떠올리게 한다. 자기의 기구한 탄생과 구원에 대한 되새김은 보문으로 하여금 이른 시기부터 생사의 문제를 절실하게 떠올리고 사유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 대구사범학교

보문의 대부분 유년 서사는 보문이 3형제 중 첫째로 태어났다고 소개한다. 보문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고 상주의 백부 신익균의 양자가 됐다. 문경 마성보통학교(월정사 승적부에는 상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밀양 박씨 박갑선과 혼인도 했다. 보문은 이 무렵 일본인처럼 일본말을 잘 했고 한문에도 능통하여 〈법화경〉을 한문과 일본어로 거듭 베껴 썼다. 그것을 아들에게 유일한 유물로 남겼다.



기막힌 출생의 사연으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고민과 사유를 해야했던 보문 선사.

외동아들 신상철은 보문이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했다는 말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거듭 들었다고 했다. 신식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문과 양아버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보문은 1932년경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하여 2년 정도 다닌 뒤 중퇴(심상과는 5년제)했다고 한다. 그때 더욱더 불교에 심취했고 민족해방을 위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항일학생운동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했으며 사회주의 활동도 했다는 전언도 있다.

보문이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만든다. 특히 그것은 대구-부산-만주행-금강산 마하연-오대산 상원사로 이어질 보문의 인생 여정과 긴밀하게 연결되기에 소중하다.

잠시 그 무렵 대구사범학교의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29년 평양사범학교와 함께 개교한 '관립(官立) 대구사범학교'는 심상과(尋常科)를 중심으로 편제되었는데, 심상과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보통학교 훈도가 되었다. 보통학교를 1, 2등으로 졸업한 전국의 수재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해마다 지원자는 모집인원의 10배~30배가 되었다. 대구사범학교는 황국신민을 배출하려는 일제의 계산에서 설립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항일 지식인의 산실이 되었다. 특히 심상과에는 민족정신에 투철한 사회주의자인 현준혁(玄俊赫, 1906~1945)이 교유(敎諭, 일제 강점기 정식 자격을 가진 중등학교의 교원)로 있었다. 그를 구심점으로 하여 '사회과학연구회'와 '독서회' 등 항일저항 비밀결사가 만들어졌다. 사회과학연구회는 1930년 말 대구사범 1기생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1년 뒤 일제에 발각되면서 현준혁과 학생 5명이 구속되고, 1기생 27명과 2기생 10여 명이 퇴학당했다. 1934년에는 제2차 독서회가 발각되어 3기생 6명이 구속되었다. 비밀결사는 대구사범 안에서 확산되어갔다. 1기생은 1929년 94명이 입학하여 1934년 55명만 졸업하였으니, 1/3은 졸업을 못한 것이다. 30%가 넘는 중도 탈락은 그 뒤 기수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했다.

보문이 1932년 전후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했다면 - 대구사범 심상과 입학자 명단에는 보문의 속명인 '신현묵'이나 '신기옥'이 없다. 참고로 1932년 입학인 제4기 명단에는 박정희(朴正熙, 1917~1979)가 있다. - 중도탈락에 의한 결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문은 편입한 뒤로 대구사범학교 초기 학생들의 이런 항일저항 분위기에 공명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한편 1934년 무렵부터는 학교가 병영화 되어갔다. 학생들은 대구사범학교를 81연대 - 대구에는 일본군 80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 라 부르고, 기숙사는 대구 제2형무소라고 부를 정도였다. 전쟁지도체제와 국민총동원체제가 구축되고 마침내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보문의 중퇴는 대구사범학교의 이런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보문은 그 뒤 대구 황금정에 있던 인쇄소에 취업했다는데, 이 점은 확실하다. 보문이 양자로 간 백부의 집안은 3대째 독자가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보문이 아들도 남기지 않고 - 1930년에 첫아들을 낳았지만 일찍 죽었다 - 집을 나가버렸으니 집안 어른들의 걱정이 컸다. 보문의 장인이 딸 박갑선을 대구로 보냈다. 보문을 만나 자식을 만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구의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는 보문을 찾아내어 3일 동안 함께 살았지만 보문은 아무 말도 없이 곧 자취를 감췄다. 박갑선은 그때 신상철을 잉태했다.

보문이 종적을 감춘 것은 부인을 상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문은 1936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신년사를 읽고 통탄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다짐이었다. 그걸 보고 통탄해한 보문은 조선일보 신년사를 문제삼는 글을 써서 어디엔가 실었다 한다. 그 글에서 보문은 황국신민정책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강제적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이 기고를 전후로 하여 보문은 일제의 위험인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순사는 대구 처소와 상주의 집에 거듭 나타나 동태를 파악하고 위협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문이 대구 황금정 인쇄소로부터 사라진 것은 일제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민족의 독립과 가난한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한 여정은 독립군이 활약하던 만주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